

# 10가구 중 3가구는 적자살림 한다

### 통계청 2017년 가계동향...가구당 월평균 생활비 256만원 소득 상·하위 월 생활비 320만원 차...빈부격차 갈수록 커져

지난해 대한민국 가구는 한 달 평균 255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간 '소비 양극화'가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액 255만6800원**=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255만6800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지출에서 소득세와 같은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액수로, 지출항목별로는 교통비가 14.4% (36만9000원)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러 식료품·비주류 음료(14.1%·36만원), 음식·숙박(13.9%·35만4000원), 주거·수도·광열(11.1%·28만3000원) 순이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37만3000원, 4인 가구는 379만8000원이었다.

조사 대상 중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도시근로자 가구도 교통비(15.1%) 비중이 가장 컸다. 도시근로자 중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61만6000원, 2인 이상 가구는 334만2000원이었다.

입주형태별로 봤을 때 자가, 전세 가구에서는 연료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월세 및 기타 가구에서는 월세와 같은 실 거주비용 지출 비중이 가장 컸다.

통계청은 지난해 2월 '2016년 연간 가계동향'을 발표하면서 2016년 소비지출을

255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해와 7000원 차이로만 조사 방법과 표본이 달라 두 해의 소비지출 변화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전 통계는 가계부만을 통해 약 8700가구를 36개월간 조사했다면 올해부터는 과거 제외했던 농어를 추가하고 표본 규모를 1만2000가구(월별 1000가구씩 12개월 순환)로 넓혔다는 것.

◇**소득 계층간 양극화 극심**=통계청의 '2017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지난해 월평균 114만6000원을 소비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월평균 433만1900원을 소비해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월평균 23만2600원을 지출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도·광열에 21만7600원, 보건의료에 12만3500원, 음식·숙박에 12만3000원을 썼다. 반면, 5분위는 교통에 71만7800원, 음식·숙박에 60만91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에 50만1600원을 각각 지출했다. 교통비 중 절반가량은 자동차 구입비였다.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3만7800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5.4%를 차지했다. ◇**"자녀 둔 부모는 힘들어"**=18세 이하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 가구는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371만6200원이었다.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230만1400원)보다 141만4800원이 많았다.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소비 지출 중



에서는 교통비가 15.5% (57만7500원)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음식·숙박비(13.4%·49만6100원), 식·비주류음료(12.7%·47만1100원), 교육비(12.6%·47만100원) 등 순이었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부는 식료품·비주류음료(16.9%·38만9000원)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홀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이른바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219만3000원이었다.

가구원 수로는 1인 가구는 137만3100원, 2인 가구는 222만3200원, 3인 가구는 310만1300원, 4인 가구는 379만7900원, 5인 이상 가구는 419만7600원이었다.

가구는 419만7600원이었다.

가구는 419만7600원이었다.

가구는 419만7600원이었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9.03 (-48.22)    금리(국고채 3년) 2.19 (0.00)  
↑ 코스닥 874.22 (+4.14)    ↑ 환율(USD) 1080.90 (+4.10)

## 광주 온 김상조 “호남 中 企 애로 정책 반영”

###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군산 GM 협력업체 간담회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광주와 군산 등 호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장 애로를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받고 있는 군산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지역 제조업 종사자 절반이 일자리를 위협받아 안타깝다”며 “군산을 불공정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전북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리를 방문,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했다. 광주지역 간담회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9개사 대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저장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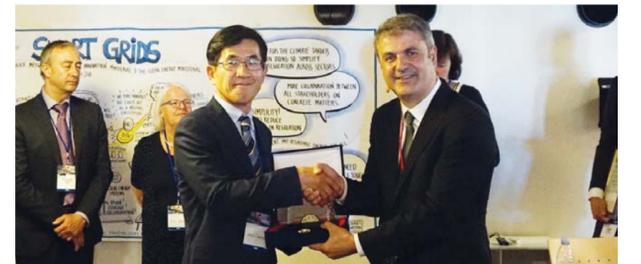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한 기술유용 심사 지침 등 대기업 기술유용 근절 대책, 하도급법 개선 작업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제조업 종사자 절반이 일자리를 위협

정거래 방지 특별지역으로 선정해 불법 하도급 및 유용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핵심산업 몰락으로 지역경제와 산업에서 급속한 공동화가 발생한다”며 “GM 협력업체, 실직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공장의 조기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그동안 신고사건 위주로 처리해 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식을 바꾸겠다”며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는 공정위가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방식으로 거래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갑)는 덴마크 코펜 하겐에서 열린 국제 스마트그리드 기술 경진대회 'ISGAN Award of Excellence'에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전 제공>

## 한전, 국제 스마트그리드 3회 연속 우수상

### 덴마크 국제 기술 경진대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갑)는 지난 24일 덴마크 코펜 하겐에서 열린 국제 스마트그리드 기술 경진대회 'ISGAN Award of Excellence'에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스마트그리드협회(ISGAN)와 국제스마트그리드연합회(GSGF)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세계 유수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업·단체에서 총 14개의 프로젝트가

참여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성과를 활용해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스마트그리드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전기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 경제활성화가 목표다. 한전은 이번 대회 주제인 '전력시스템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의 우수성'과 부합, 주요 평가요소인 잠재적 영향력, 경제적 합리성, 적용가능성 및 기술혁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농협전남본부, 민·관 합동 양파 수확철 무안 일손돕기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30일 민·관·군·경 합동으로 무안군 일대 양파농가를 방문해 대대적인 양파 수확철 품앗이 일손돕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허식 부회장을 비롯해 광주·전남·전북 농협 임직원과 고향주부모임, 전남지방경찰청, 육군 보병학교, 무안군, 무안교육지원청, KT&G 광주전남본부 등 각 기관 540여명이 참여해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양파수확 작업을 도왔다. 또 양파가격 회복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인 양파 팔아주기·사주기 대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양파농가를 도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농업인이 행복한 농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box@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편안착용감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탄성GOOD! 흡발습 GOOD!    이온, 실크이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일본 도레이社 LYCRA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다른 욕망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